

화재나도 소방차 진입불가 사찰 167곳 火魔에 '무방비'

[진단] 사찰이 안전하지 않다

2012년 10월 31일 새벽 1시 45분. 단풍 명소인 전북 정읍 내장사에서 갑작스럽게 불길에 치솟았다. 사찰에는 스님 10여 명이 거주했지만 목조건물에 옮겨 붙은 거센 불길에 속수무책이었다. 화재감지시스템에 의해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40분이 지난 새벽 2시 25분 경. 이미 대웅전과 그 안의 문화재를 모두 태운 뒤였다. 당시 사찰 인근에 배치된 소방차가 노후화로 3개월 전 철수해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처럼 전통사찰 상당수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전통사찰 952곳 중 12%인 112곳이 일반 가정용 소화기 외 별다른 대책이 없었으며, 특히 18%에 달하는 167곳은 외부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해 대형화재에 취약했다.

국민안전처가 3월 23일부터 4월 15일

종교시설 화재 1191건 중 사찰 22%

기본 소방설비 미비 112곳 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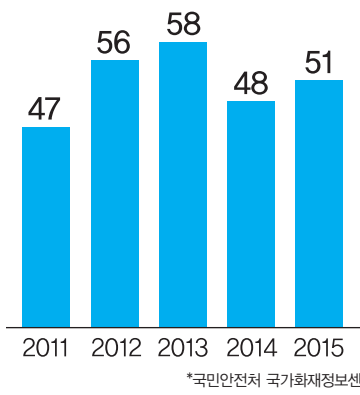
소방펌프, 소화장치 등 설비 無

산림법 등 규제 장벽 철폐 과제

조계종·국민안전처 대책 고심



(전국사찰 화재 연도별 발생 건수)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까지 약 1개월간 사찰 견내 소방차 진입 여건 및 초기소화설비 설치여부 파악해 27일 발표한 조사내용이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의하면 진입로 협소 70곳, 도로없음 64곳, 가파른 경사 24곳 등이 구체적인 소방차 진입 불가의 사유로 꼽혔다.

또 사찰일주문 계단 5곳, 일주문 폭 제한 1곳, 사찰 내 진입로 협소 3곳 등도 포함됐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전통사찰들은 옥외소화전, 비상소화장치 같은 초기 소화설비를 설치해 초동진압을 해야 하지만 112곳은 이동식 소방펌프나 비상소화장치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시설 화재 23%가 사찰화재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의 최

근 전국사찰 화재원인 분석을 보면 사찰의 화재 위험성은 더욱 피부에 와닿는다.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5년간 전국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191건으로 이중 전통사찰 화재가 22%(260건)를 차지했다.

인명피해도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다쳤다. 원인은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으로 각각 34%와 29%를 차지했다.

사찰의 연도별 화재발생 빈도를 보면 2011년 47건, 2012년 56건, 2013년 58건 등으로 증가했으나 2014년 국민안전처 설립 이후 48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 51건으로 다시 증가세에 돌입했다. 소방설비 등에 한계가 있어 작은 발화도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안전처가 사찰을 대상으로 방재에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다.

산림법 등 규제 장벽 넘어야

현재 시급한 과제로는 사찰 소방도로 설치가 꼽힌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있다. 산림법 등이 그것이다.

실제 지난 2014년 강화 삼랑성에서 난산불이 전등사로 번지기 직전까지 갔다. 전등사는 소방차가 들어 올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 전등사 내 300톤의 방화수로 겨우 화마를 견뎠다. 위기를 넘기고 전등사는 소방차 진입을 막는 남문계단 정비 등을 제안했지만 문화재청이 사적 훼손을 이유로 불허했다. 방화선 설치도 요구했지만 지자체가 간벌을 서로 떠밀고 산림법 등에 저촉되며 유야무야 됐다.

심주완 조계종 문화위원장은 "산림법과 도로법, 하천법 등 저촉되는 법령이 상당수 있다. 도로 개설시에 드는 예산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인국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난 3월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서 규제 완화와 예산지원을 시사했다. 당시 박 장관은 "관계부처와 논의해 사찰의 소방도로를 별도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법과 제도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위해가 가해된다면 과감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화재 방지를 위해 방재시스템에도 지원하는 한편 소방시설 설치 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실장 해일 스님도 "국립공원과 문화재청 등과 50m 화재방지선을 두는 사업을 벌였지만 일부 사찰이 규제법령에 저촉돼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가적으로도 소중한 문화재를 보관한 곳 이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과 4월 29일 긴급 회의를 열고 소방차 진입 여건을 비롯한 사찰 방재 개선을 시작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올해도 부처님오신날에 앞서 사찰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대상 사찰은 총 2317곳으로 특히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가 있는 사찰 83곳 중 최근 3년간 합동점검을 받지 않은 9곳을 골라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이 직접 점검한다. 또한 전국 소방관서는 부처님오신날 전후 화재특별경계 근무를 하고, 중요 사찰에 소방차량을 근접 배치시켜 화재에 대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연등으로 수놓은 '미래 100년 총본산 성역화'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가 오색 연등으로 이뤄진 '미래 100년 총본산 성역화' 문구를 선보였다. 조계사는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연등문구를 통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월정사에 오대산 사고 전시관 건립 예정

조선왕조실록·의궤 귀환 새 전기 마련할 듯
6월 착공 예정, 연면적 2800㎡에 지상 2층 규모

월정사에 평창 오대산 사고 전시관이 6월경 착공될 예정이어서 '오대산사고 본 조선왕조실록·의궤' 귀환이 앞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건립 타당성 용역을 이미 마친 오대산 사고 전시관은 5월초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월정사 입구에 연면적 2800㎡에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오대산 월정사 주지 퇴우 정법 스님은 "내년에 오대산 사고 전시관이 월정사

입구에 세워지면 영구 및 장기 임대나 전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선왕조실록·의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며 "유관 기관과 협의해 귀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평창군은 현재 실록·의궤 진본 일부를 대여 형식으로 전시하는 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중이어서 귀환 여부를 불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시관이 들어서면 실록과 의궤를 체계적으로 보

관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영구 임대 등 형식을 갖춰 사실상 반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장실 강원대 교수는 "사고 전시관이 건립되면 오대산사고에 보관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제자리로 가져올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관 건립에는 국비 47억5000만원과 도비·군비 각 23억7500만원 등 총 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한편 일제강점기 반출됐다 2006년 반환된 실록은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있으며, 2011년 환수받은 의궤는 국립고궁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은평구·함양군, 백초월 스님 선양 나선다

선양사업 실무협의... 탐방·순례길 등 조성 추진

경남 함양군·고성군, 서울 은평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사용했던 제작형식·도안과 동일한 태극기를 그린 백초월 스님(1878~1944)의 선양사업에 나선다.

함양군과 은평구는 "진관사 태극기"를 그린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의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고 4월 27일 밝혔다.

함양군은 오는 6월 고성군·은평구와 업무협약을 하고 관소리 개발 주요 탐방

길과 순례길 등 선양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선양사업의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백초월 스님은 1878년 경남 고성서 태어나 1891년 함양 마천 영원사에서 출가했다. 스님은 이후 1916년 함양 마천 영원사 주지로 임명된 뒤 영원사 재건 불사를 추진했다. 영원사에는 스님이 사용한 신발 주머니 등 일부 유품이 있다. 스님은 1919년 중앙학림에 민단분부를 설립한 뒤 군자금 모금과 임시정부 송부,

혁신포보 제작, 승려독립선언서 배포 등의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스님은 비밀결사체 일심교 창설과 진관사 주석 역임, 일심교 강령 제정 등 수많은 항일운동을 펼쳤다. 1944년 독립운동 군자금 사건으로 일제에 붙잡혀 그해 청주교도소에서 옥중 순국했다.

함양군은 "한국 근대사의 대표적인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백초월 스님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선양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은평구는 진관사 태극기를 발견한 후 순국 70주기 기념 학술세미나, 백초월 스님 순국추모제, 진관사 태극기 가리기 계약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 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화엄경 81권 출간 불사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해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칩니다!!

불조정맥 제78대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 각 권과 각 품마다 토기불 지문자답으로 선미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습니다.

전자출판으로 1, 2, 3권을 무료로 선공개할 예정이니, 읽어보시고 과연 명안종사의 역저여서 만민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